



“내세요? 난 모릅니다”-에디슨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미턴 루터 킹
“나는 배반을 당했어”-히틀러

피할 수 없는 죽음 어떻게 맞이할까



위인들의 마지막 하루
M.V. 카마스 지음
이옥순 옮김
사과나무 펴냄 | 1만3천원

월 빙 못지 않게 웰다잉(Well Dying)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위대한 인물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책 <위인들의 마지막 하루 (원제-Philosophy of Life and Death)>가 출간되었다.

사람이면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그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위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권력이나 명예, 부유함이 행복한 죽음을 보장하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반대로 빈곤하거나 권력이 없다는 사실이 행복한 죽음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말해준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이라 불리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본 것이다.

1300건의 특허를 가진 에디슨은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의사들이 자신에게 어떤 약을 어떻게 처방하는지 궁금해 했고, 자신의 혈액을 검사할 슬라이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내세(來世)도 모릅니다”라며 과학자다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맥박을 짚 정도로 침착성을 유지했던 조지 워싱턴은 “나를 잘 물어달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

프로이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진통제를 거부하고 <정신분석학 개요> 저술에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생각이 흐트러지지니 차라리 고통 속에서도 명쾌한 생각을 하기를 원했다.

흑인인권운동가로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마틴 루터 킹은 비로소 죽을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몽골제국의 정복자 칭기즈칸은 “내 후손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어여쁜 여인들을 깨안을 데지, 그러면서도 누가 그렇게 해주었는지 모를 거야...”라며 못다 이룬 정복의 꿈을 아쉬워하며 “아들아! 나는 죽는다”라고 했다.

전장에서 싸우다 최후를 마친 사람중에서 벨스처럼 상흔이 남

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벨스는 죽기전 ‘빅토리아호’에 타고 있었다. 그는 뱃갑판을 걷다가 날아온 포탄에 맞았는데, 끝까지 프랑스-에스파냐 아 연합 함대를 격파하고 나서야 “나는 나의 임무를 다했노라”라는 말을 남기고 빅토리아호에서 전사했다.

반면 역사의 패배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무솔리니는 유격대에 잡혀 총살된 후에도, 증오에 불타는 사람들이 그의 시체에 총을 쏘고 오줌을 누는 만행을 당해야 했다.

히틀러 역시 자살을 앞두고 “나는 배반을 당했어”라고 탄식하며, 독약이 가짜인지 의심하며 애견 블룬디에게 먼저 먹여보는 치밀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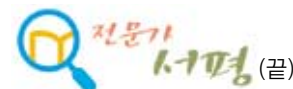
레닌의 시체를 부검한 의사들은 그의 뇌가 정상인의 4분의 1로 작아진 상태인 것을 보고 “그런 뇌를 가지고도 사고력이 손상되지 않고, 또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놀랐다. 죽기 전 차레나 뇌일혈을 일으키면서도 혁명을 수행한 레닌의 의지력은 가히 전설적인 것이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죽음은 살처럼 하나의 기술이다. 잘사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이미 잘 죽는 기술을 배운 것과 다름없고 그러한 죽음은 두려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죽음은 용기 있고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가 잘사는 기술을 찾기 위해 노력하듯이 잘죽는 기술을 습득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잘사는 기술은 잘죽는 기술과 다르지 않다. 착한 삶이 고통없는 끝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죽음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평화롭게 죽으려면 반드시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 죽음의 승리를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움과 약의 대상이 아니라 팔을 벌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와 같다. 그것을 아는 시인 볼테르는 어려움 없이 죽음을 안았다.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죽음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역사적 인물들의 최후 모습 통해 이타적 삶을 산 사람만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박한 진리 일깨워



서희, 협상을 말하다
김기홍 지음
새로운제안 펴냄 | 1만1900원

세지 히로 강동6주를 획득한 고려의 재상 서희. 만약 그가 현재 한국의 협상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책은 서희의 기적과 같은 협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의 안목으로 한 차례 자유 무역협정, 이라크 파병 등 최근의 현안에서 나타난 한국의 협상력을 분석한 책이다. 역사적 사실을 협상이라는 틀로 분석하는 재미가 크며, 서희를 꿈꾸는 미래의 협상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담겨 있다.

본문은 크게 3부로 구성돼, 1부는 서희의 협상과 관련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것을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2부는 서희가 지금 살아 있다면 우리의 협상 경험과 관행에 대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 볼 수 있게 한다.

3부는 일종의 서희 대망론으로 당시 고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에서 서희와 같은 뛰어난 협상가를 얻기 위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 어떻게 협상을 교육해야 할지를 정리했다.

한국 협상력의 어제와 오늘

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한일어업협상 이래 우리의 국제협상은 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한중마늘협상, 한중어업협상,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 등 수많은 국제협상에서 보여 준 우리의 협상 모습은 정말 슬프고 안타깝기만 했다. 국제협상 뿐이 아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 역시 우리의 협상 문화가 어떤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 썬시장 개방 문제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농민들의 모습, 물류대란을 일으킨 화물노조의 파업,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간의 극한 갈등, 핵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때문에 벌어진 부안 사태... 서글픈 우리의 협상모습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WTO, DDA, 북핵관련회담 등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모를 굴곡진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협상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국제협상에서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서희의 입을 통해 알아본다.

지은이는 내부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를 협상 과정에 포함시킬 것, 비판적인 여론을 활용할 것, 충분한 정보를 매스미디어에 제공할 것, 상대국 내부협상에 영향을 미칠 방안을 고려할 것, 필요할 경우 국민을 설득할 것, 예상되는 피해 대책을 사전에 합의할 것 등을 들었다.

책은 구체적인 조언도 있지 않는다. 실제 협상에서 취해야 할 불편적인 지침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무게중심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서희의 협상을 모델로 오늘의 협상 테이블을 비교 분석하는 시도에 있다 하겠다. 제대로 된 협상이 가지는 파괴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영중(상지대 사회학 전공 강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유쾌하게 읽는 불교

지금까지 이런 불교입문서는 없었다. 현대적 시각으로 가장 쉽게 설명된 불교입문서! 정확하고도 모범적인 불교 교리 해설서!

동승동 / 고영석 지음
신국판 293쪽 / 값 9,000원

불교미술기행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를 파헤치는 책 불교 조각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슨 뜻에서 그런 조각이 만들어졌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해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각만이 아닌 인도나 중국 등의 불교미술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가서 / 조병철 지음
신국판 310쪽 / 값 15,000원

마음이 쑥쑥 나는 불교이야기 129

좋은 생각, 좋은 아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 맑고 건강한 삶을 위한 어린이 명상집 의미 없는 천가지 말보다 단 하나라도 마음을 일깨워주는 말이 훨씬 더 소중한다. - 범규경 -

바다교실 / 양태석 글 이재순 그림
신국판 199쪽 / 값 8,000원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반야심경에 담긴 삶의 지혜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랄나게 했는지 모른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인 행복과 내적 평화로 이끌어 준다.

도서출판 무한 / 범성남 글 · 사진
신국판 374쪽 / 값 10,000원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看話禪)

산사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해 온 선원장급 수행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조계종 수행지침서!’ 한국선의 근간을 이루는 간화선은, 공안을 참구하여 의안을 타파하고 자성을 깨닫는 환구찰신법이다. 조계종출판사 / 불학연구소편저
신국판 양장본 437쪽 / 값 15,000원

2005년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10**

‘올해의 불서 10선’은 올해의 대표적인 불서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엄선한 책입니다. 불자들을 위하여 해마다 출판된 책 중에서 ‘10선’을 선정합니다!

진정한 불자는 책을 읽습니다

● 구입문의: 불교서적전문 서시이문 02)2004-8220/737-0695 / www.yosiamun.com * 전국 각서점에서 질리지 않는 판매 중입니다

●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범보신문사,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영화로 불교를 만났다!!! 영화를 통해 불교의 진리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책. 총 33편의 영화를 7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치 / 월호지음
신국판 180쪽 / 값 9,800원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대승불교의 핵심적 사상을 요약적으로 설명. 이 책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그리고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의 체계적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불림출판사 / 서관남 지음
신국판 235쪽 / 값 8,000원

불교풍속고금기

사찰의 생활과 풍속에 대한 50가지 이야기 불교에 대한 소박한 궁금증에서부터 사찰의 생활과 모습 속에 담긴 깊은 뜻까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줌으로써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은행나무 / 박부영 지음
신국판 319쪽 / 값 13,000원

선문염송 염송철화(1-10)

선문의 내용 중에서 염송을 주로 다룬 ‘선문염송’과 염송의 주석서인 ‘염송철화’를 회편하였다. 『한국불교전서』 제5책의 ‘선문염송염송철화본’을 저본으로, 『선문염송』 원문은 역자가 원도하여 번역문 다음에 수록하였고, 『염송철화』는 서울대 규장각본을 책 뒷면에 영인하여 실었다.

동국역경원 / 김월은 옮김 해설 · 각운 지음
신국판 680쪽 / 값 20,000원

잊혀진 가람 탐험

소설가 황석영씨가 추천하는 화제의 책 잊혀진 우리의 가람터, 그 옛 주소로 가다! 시인 장지현의 전국 폐사지 순례기

여시어문 / 글 장지현 · 사진 고영배
4×6배판 변형 360쪽 / 값 23,000원